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새해 2012년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1월 1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원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해공군 및 로동적위대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신 다음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해공군 및 로동적위대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민족의 100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돌이

켜보았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새로운 100년대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는 자랑스런 년대로 빛내이는데 한몫 다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전당, 전군, 전민이 굳게 단결하여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뜻깊은 2012년을 우리 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과 불패성을 만방에 떨치는 위대한 승리의 해,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기는 자랑스런 부흥의 해로 빛내일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뜻깊은 새해에 즈음하여 1월 1일 오중흙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사단의 장병들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새해를 맞이한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어버이장군님의 불같은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흥모의 정을 담아 새해의 인사를 드리였다.

영접보고를 받으신 최고사령관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눈물속에 나날을 보내었을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사단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105땅크사단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제일 많이 어리여있는 군부대들중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사단의 장병들이 우리의 땅크무력강화발전에서 바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고를 가슴깊이 새겨안고 사단을 쇄소리가 나는 싸움군들의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오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 105땅크사단에 기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오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105땅크사단은 명칭만 불러보아도 장군님의 제취와 체온이 느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작전연구실, 전자도시설, 훈련기재 등을 돌아보시면서 훈련과 전투동원준비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사단의 장병들이 적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고도의 긴장성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훈련과 싸움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사단에서 작전연구실을 비롯한 훈련장과 훈련기재를 잘 구비해놓고 훈련을 정상화하여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의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높여주고있으며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역세계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평시에 훈련을 잘하여야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시에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훈련으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는 혁명적훈련기풍,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난관극복정신으로 싸움준비와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정상적인 동원태세를 갖추어 언제나 발사직전과도 같은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자도시설에 그쁘히 갖추어놓은 컴퓨터들의 리용실태에 대하여 세심히 물어주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 보시였다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이날 사단직속 3대혁명붉은기부대를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을 진어버이심정으로 헤아려주시였다.

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다양한 교양자료를 충분히 갖추어놓고 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병실에 들어가시어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배려하여주신 난방설비들을 리용하여 한겨울에도 병사들이 훈훈하게 지낸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온도가 얼마인가를 직접 재어보시고 앞으로는 기별없이 찾아와 온도를 가능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세목장에 들리시어 어버이장군님의 은정깊은 배려에 의하여 갖추어진 태양열설비들을 리용하여 물도 덥히고 난방도 보장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몸소 물이

더운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였다.

더운 김이 피어오르는 식당의 조리대에 가득히 차려놓은 여러가지 음식들을 보시고 오늘은 명절인데 잘 먹이라고 거듭 당부하시면서 그레야 어버이장군님께서도 마음을 놓으신다고,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그러도 사랑하신 우리 병사들에게 풍족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풍창고에 들리시어는 풍농사정형을 물어주시며 풍농사를 잘하는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인것만큼 전국적으로 풍농사업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는것은 지휘성원들의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만행, 만누이가 될뿐 아니라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진정한 혁명전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그래도 식당은 다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밥먹는칸에 들어서신 최고사령관께서는 간장새갈도 살펴보시고 식당안의 온도도 가능해보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늘 병사들이 더운 곳에서 생활하고 더운 곳에서 밥을 먹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지휘관들은 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동행한 지휘성원들에

게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한전호에서 함께 싸울 혁명전우들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관병일치, 상하일치의 미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는 사단의 장병들이 영예로운 조국보위초소에서 자랑스런 군공을 세워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 활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는 군인들은 까치소리가 들려도 어버이장군님을 그리던 자기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며 명절날의 이른아침 초소를 찾아주시신 최고사령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눈물을 감잡지 못하면서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심장으로 웨치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떠나시던 걸음을 거듭 멈춰세우시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병사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모두 건강하여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병사들을 잘 돌보아주어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단을 전군의 모범이 되게 하라고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를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를 관람하시였다.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 인민군장병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인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을 승리로 령도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새해를 맞이한 그들을 열

렬히 축하하시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관람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음악회무대에는 여성3중창과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여성3중창과 여성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합창 《그이의 한생》, 남성2중창과 남성방창 《장군님이 그리워》, 민족기악2중주 《비날론 삼천리》, 남성독창과 방창 《선군을 노래할 때》, 여성5중창 《꼭 오실거야》, 합창 《인민사랑의 노래》, 여성독창과 방창 《애국과 흥보》, 《사랑에 대한 생각》, 남성6중창과 방창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이다》, 여성독창과 합창 《아 그리워》, 관현악과 합창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여성독창과 방창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여라》, 여성6중창 《경애하는

그이 품에 안긴 이 행복》, 합창 《우리의 행군길》, 《조선의 힘》, 여성3중창과 합창 《수령님의 손길따라》, 설화와 관현악 《조선은 일떠섰다》, 합창 《나가자 조선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만가지 복을 안겨주시려고 이 나라의 령이란 령은 다 넘으시고 눈바람, 찬비를 다 맞으시며 혁명령도의 전기간 단 하루도 마음편히 쉬지 못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한생을 노래와 선율에 담아 올리는 음악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관람자들의 흐느낌소리로 하여 장내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버이장군님께 못다 바친 충정을 백배천배로 더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위업을 받드는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담은 음악회는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끝났다.

음악회가 끝나자 또다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의 총정의 열기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이 사상주체적대가 뚜렷하고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념원, 불타는 맹세와 각오를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을 안고 새 진군길에 용약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분출시켜줄수 있게 음악회의 구성이 잘되었으

며 특히 설화시가 정말 좋고 랑송도 잘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나올 때 눈곱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음악회를 보면서 큰 힘을 받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새해를 맞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비상히 높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새해진군길에서 또다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2012년을 어버이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그이의 념원을 어떻게 받들고 실현해가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맹세와 실천의 한해로 빛내여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일심단결의 영원한 화폭

해는 바뀌었지만 조국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구를 마지막까지 바래워드린 그날의 일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

결코 오지 말았어야 할 비통한 이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은장군님과 영결하는 의식이 거행되는 평양시내 100여리 연도는 수백만의 군중이 흐리는 눈물과 비통한 곡성으로 가득했다. 인민의 처절한 곡성과 눈물이 하늘에 닿았는가 하늘에서도 추모의 눈물인양 흰눈이 쉬임없이 내리고 산천초목은 비눈에 몸부림쳤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오시다가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일찍이 서거하신 어버이장군님의 환하신 태양상을 비움은 순간 비애의 바다는 세찬 격랑을 일으켰다. 장군님을 목매어 부르며 가슴을 랑랑 치는 억대수같은 사람들, 언 땅에 쓰

러져 몸부림치는 너인들, 건딜수 없는 정신적타격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제 더는 그 품에 안길수 없단 말인가, 다정한 그 음성 이제 더는 들을수 없단 말인가, 아, 아버지! 가시면 안됩니다. ... 삽시에 령구차는 수많은 사람들에 에워싸였다.

끝없이 굽이치며 오열하는 군중의 파도. 그것은 운명의 태양. 위대한 아버지와 순간도 떨어져살수 없는 인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뜨거운 진정의 분출이었다. 오직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애틋한 애가 애틋한 애가. 이 순간은 감동적인 대화곡이었다.

세상은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후손들,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인민이 령도자와 운명공동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참모습에 또다시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반면에 민족의 대국상에 관한 중대보도가 나가기 바

쁘게 《김일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마치 바라던 《금번사태》가 도래한것처럼, 공화국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호기》라도 온것처럼 분수탕을 퍼우던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은 넋을 잃고 기절 초풍했다.

이미지부터 공화국의 《붕괴》를 꾀하는 《가다리는 전략》에 매달려 반공화국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보수대당이었다. 그들로서는 공화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일련달심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이러한 단결을 깨뜨릴 힘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었는가. 눈내리는 이른새벽 조의식장의 화환들이 젖을새라 자기들의 솜옷을 벗어 씌운 청년대학생들, 우리 장군님을 가시지 않으셨다고 목놓아 우는 너인들, 발을 동동 구르며 장군님을 애라게 찾는 어린이들, 78년만에 보

장 많은 눈이 내리던 영결의 그날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찬눈비를 맞아오신 어버이장군님을 마지막날 령구차가 지나갈 도로에 솜옷과 목수건을 벗어던지고 내리는 눈을 막던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민들.

피눈물의 12월이 펼쳐진 일심단결의 화폭은 령도자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드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단결이었다.

민족최대의 상실의 아픔을 당하였지만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위인이 계시다는 철석같은 믿음으로 하여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 거연히 일떠섰다.

인류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시련을 강인한 의지로 이겨내며 천백배로 그 힘이 강해졌으며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력, 덕망을 그대로 계승하여 우는 너인들, 발을 동동 구르며 장군님을 애라게 찾는 어린이들, 78년만에 보

지 계승완성해나갈 신념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우리 조국에 펼쳐진 2011년 12월의 모습,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 공화국의 일심단결과 불매성의 파시이다.

17년전,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비분에 잠겼던 가장 어려웠던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지구우에 떠도는 온갖 《붕괴》설을 흘날려버리며 승리의 래일을 향해 기세차게 나아갔던것처럼 또 한분의 태양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단결하여 강성국가건설위업을 기어이 완수할 애국의 맹세와 열의로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선군조선의 회함과 승리의 해, 2012년은 세계에 조선의 힘을 다시금 남김없이 보여 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우리는 하늘처럼 맑고 밝은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또 한분의 위인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

나는 피눈물의 그날 남너로소 할것없이 조국인민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끝없이 신기하며 그분께 운명도 행복도 미래도 맡기고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체험하였다.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그이의 애국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려는것은 조국인민들모두에게 간직된 드물지 않은 신념이었다.

세계를 둘러보면 정치가나 지도자들이 정사를 보는데서 바라보는것이 바로 민심이다.

부연하건대 서방사회의

대통령선거를 보아도 민심을 얻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뿌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이 레상사이다.

그러나 그 어떤 금권이나 강권으로도 움직일수 없는것이 민심이며 정치가 좋아야 민심이 따른다는것을 조국방문의 이날 나는 다시금 뼈부르듯 절감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12월의 추위속에서 조의식장들을 찾는 조족들을 걱정하시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추위에 몸이 얼세라 해당한 대책을 취하도록 일일이 이리시었고 더운물에 사랑가루를 풀어 봉사하면서 더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상업부에서 음료봉사도 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고 한다.

산골이며 뺨과 과자같은것도 봉사하도록 하셨다고 하니 그분의 인정미는 정말 사려깊고 불처림 뜨거우셨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

의 인덕에서 나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보았고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적紐대를 이룬 조국의 일심단결을 체험할수 있었다.

민심은 천심이다. 조국인민들과 함께 해외동포들도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통일되고 번영할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기여할 열의에 넘쳐있다.

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될것이라고 확신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



선군령도의 갈피에서

병사들과 함께 맞으신 비

여러해전 어느날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 군인들의 훈련을 보실 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소낙비가 억수로 내리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 나의 병사들이 밖에서 찬비를 맞고있는 내어떻게 감시대에서 훈련을 보겠는가 하시며 비가 쏟아지는 훈련장으로 나가시었다.

지휘관들모두가 굳이 만류하였으나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비를 맞으며 훈련할 때에는 최고사령관도 함께 비를 맞아 한다고 하시면서 찬비뿌리는 야외에서 훈련을 지켜보시었다.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해 태양절 이른아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르신던 1211교지를 왔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온갖 시간에 걸쳐 반미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

의 발자취를 더듬으시었다.

시간이 퍼그나 흐르자 일군들은 그이의 건강이 걱정되어 다음으로 곧추 가실것을 청드리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아무리 같길 바쁘고 힘들어도 리수복중대에 들렀다 가자고, 영웅중대병사들을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앞장서 걸음을 옮기시었다.

다심한 사랑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대적으로 건설된 인민군부대의 염소목장과 토기목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온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어디에서나 염소, 토기를 비롯한 훌륭한 집짐승을 많이 기를수 있다고, 이 사업을 전군적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벌여 축산물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은 겨울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그이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가를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그이의 위인상을 못 잊는 민족의 마음을 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유민보》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에 따른 북의 국상발표 이후 중국 연구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그 추모열기가 매우 뜨거워 놀라웠다. 한 력시문전사는 《친구들과 만나면 요즘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다들 뜻밖의 서거에 애석함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엔지의 박모시인은 《김정은후계자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북을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김정은대장의 젊고 당당한 기상을 보며 다들 북의 미래가 밝다고 입을 모으고있다.》며 북주민들이 어떻게 슬퍼하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과시 위인이시다》

을 살펴보았는데 그 추모열기가 매우 뜨거워 놀라웠다. 한 력시문전사는 《친구들과 만나면 요즘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다들 뜻밖의 서거에 애석함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엔지의 박모시인은 《김정은후계자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북을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김정은대장의 젊고 당당한 기상을 보며 다들 북의 미래가 밝다고 입을 모으고있다.》며 북주민들이 어떻게 슬퍼하는

것은 김정일위원장님이 나라와 인민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다.

엔지의 박모시인은 《김정은후계자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북을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김정은대장의 젊고 당당한 기상을 보며 다들 북의 미래가 밝다고 입을 모으고있다.》며 북주민들이 어떻게 슬퍼하는

했다.

중국중앙TV방송 등 중국 주요방송들도 황금뉴스시간에도 아끼지 않고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와 비통해지는 북주민들의 추모분위기를 련일 계속 보도하고 있다.

특히 후진라오주석과 원자바오총리 등 중국의 주요지도자들이 베이징주재 북대사관을 직접 찾아 조문한 사실을 중앙의 언론은 물론 지역신문까지도 일제히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엔비엔데 최고교수는 《중국인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과시 위인은 위인이시다는 평을 내리고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중국인론과 중국인들도 《북이 미국에 어떻게 당할수 있는 리유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선군정치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군사력을 키웠기때문》이라는 점을 점점 리해해가고있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이 대단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이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확고한 령도력을 구축하였으며 북의 운영시스템이 사상리론적으로 유일체제로 되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세상은 이미 북을 가장 강력한 일심단결을 이룬 사회라고 말하고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서방에서 들어오던 북의 실상과 실지 나의 눈으로 본 북의 현실은 오늘 나에게 강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선대수령에 대한 숭배심과 자기 령수에 대한 이런 신뢰심을 간직한 인민이 있어 북의 일심단결은 영원불패한 것이 아니겠는가고 나는 확신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영원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실것이며 그이와 똑같은 위대한 후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인민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넘진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줄것이다.

본사기자

독자반향

가장 뜨거운 위인의 사랑

지금도 10여일전 제가 직접 체험했던 감동깊은 일들을 생각하면 눈곱이 찢어듭니다.

한해도 다가던 12월의 어느날 나는 딸과 함께 당장기념탑주변에 꾸러진 조의식장을 찾아 추모의 인사를 드리고 호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없이 볼수 없는 화폭을 목격하였습니다.

조의식장주변에는 가설대들이 새로 설치되어있었고 베스들이 서있었습니다.

이 가설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추운 겨울날 조의식장을 찾아오고 호상을 서는 인민들을 위해 차리게 하여주신 더운물 봉사대였습니다.

더운물을 어서 들라고 매대의 봉사원들이 권하였지만 목이 메어 차마 마실수 없었습니다. 베스에도 뜨거운 온정이 깃들여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베스의 온정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호상을 서는 사람들이 언뿔을 녹이도록 하여주시었던것입니다.

다른 두대의 베스는 조의식장을 찾는 사람들이 집에 타고가도록 배려하여주시었었습니다.

딸과 함께 호상을 서는데 여러 사람들이 달려와 장갑

을 꼭 끼라고, 솜옷에 달린 모자와 머수건을 쓰라고 일러주면서 자기들이 직접 모자를 씌워주는것이었습니다.

방송으로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호상을 서는 사람들은 꼭 모자와 수건을 써야 한다고, 아버지장군님께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보시면 가슴아파하신다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말씀하셨다는것, 그이께서 가슴아파하지시지 않게 장갑도 끼고 모자와 수건도 쓰라고 거듭 말하는것이었습니다.

꽃매대에서는 꽃을 파는것이 아니라 그저 봉사하는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말 가슴에 차넘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절통한 나날에 가장 뜨겁고 가장 친근한 사랑을 받게 되니 가슴이 뚫어오름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을 추위속에 모시고있는데 우리가 모자를 쓰고 장갑을 건다 그것이 어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가슴이 찢기고 쓰러시켰지만 그속에서도 인민, 우리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었습니다.

그저 울음만 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의 가정에서도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배려로 청어와 동태를 공급받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속에 받아안은 그 물고기, 철없이 그저 좋다고 웃으면서 물고기를 먹는 어린 손자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걱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수령복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

기쁠 땐 그 기쁨을 더해주고 고난이 밀려오면 그 고난을 다 막아주고 이렇게 피는 물이 흐를 때에 그 피눈물을 닦아주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이런 수령을 대대손손 모시고있는것이 정말 북중의 복이라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의식장에서 받아안은 충동을 통하여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야말로 인민을 위해 하늘이 낸 위인, 또 한분의 인민의 수령이라는 격동을 느꼈습니다.

그날밤 집으로 돌아오며 사람들은 다 울었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어찌면 김정은동지는 인민의 시정을 그토록 잘 알고 어찌면 인민을 위해 그리고 세심한 분이신가고, 그이가 계시어 우리가 잘살 날이 꼭 올것이라는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슬픔과 사랑은 서로 섞일수 없는 감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눈물속에서도 사랑을 받고 슬픔속에서도 사랑에 사는 곳이 바로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또 한분의 위인이 계시는 내 조국, 사회주의 내 나라입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룡라2동 리길 옥

《이것이 바로 일심단결이다》

에 나란히, 줄줄이 깔아 자기 령도자의 령구차가 가는 길에 눈이 쌓이지 않게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내리는 험한 날에도 쉬지 않고 인민을 찾아 멀고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흰 눈덮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중 열차에서 순직하시었다고 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한생토록 맞으신 찬눈을 떠나시는 이 길에서만은 부디 맞지 마시라고 북의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로에 쌓인 흰눈을 쓸고살았다.

또 태양상을 앞세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운구행렬을 예뻐하고 막아서며 우리 결을 떠날수 없도록 비통함과 절통함으로 몸부림치는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령도자와 인민간의 두터운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연극계의 판록있는 명배우로 명성을 날길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서 미군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에 오رن팔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고



주제 100년 12월 24일 (토요일) 본보기자 《온 나라 조의식장에 펼쳐진 눈물겨운 사랑의 화폭》에 편집한 사진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발표

새해 주체 101(2012)년을 맞으며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자!》라는 제목으로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공동사설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속에 2011년을 보내고 새해 주체 101(2012)년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해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새해의 진군길에 오르는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전통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태양의 모습은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는 승리의 기치였고 정신력의 원천이었다. 지금 우리의 천만군민은 크나큰 슬픔을 친백배의 고통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하에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강성부흥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고있다.

지난해에 우리가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영결하게 된것은 5천년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이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곡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시군정장으로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적생애를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 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심으로써 어머니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고 백두의 혁명전통이 견결히 옹호고수되었으며 우리 당과 군대의 위력,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반민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변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 어머니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족민중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토대를 마련하여 주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에 이룩하신 최대의 공적으로 빛나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민족의 래양으로, 어머니로 모시고 혁명하여 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으며 김정일동지의 념원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지난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란성 100돐을 선군대고조의 승리의 포성이 울리는 크나큰 경사로가 장성대하, 가장 의의있게 맞이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2012년의 자랑스러운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민적인 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구들과 최전초소들,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합무전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 100년사가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력사로 빛나게 결속되게 되었다.

공동사설은 지난해에 인민생활대진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21세기 경제강국의 강력한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었으며 나라의 전반적면모가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되고 위대한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풍모가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정세는 긴장하고 복잡하였지만

령도자의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민심은 언제나 순결하고 변함이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는 애도기간은 뜻과 정으로 맺어진 어머니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혈연적紐帶는 영원히 변함없는 가장 애석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천만군민이 크나큰 비분을 안고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가식도 모르는 순결무구한 단결의 눈물이며 이 세상 끝까지 당을 따르려는 불타는 맹세의 눈물이다.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닌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품모는 적들을 전멸케 하고 온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신 불패의 당과 군대, 국가가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대를 이어 령도자를 총직하게 만드는 훌륭한 인민이 있는 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 이것이 새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모두가 지니게 되는 철의 진리이다.

공동사설은 올해 주체 101(2012)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부흥사상이 빛나는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해이며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전군의 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은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적진군의 계속이다.

위대한 수령님이라 시작하고 장군님이라 백승벌쳐온 우리 혁명을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영원한 승리로 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새 100년대전군의 희망의 불대는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혁명사상이요 필승의 보검은 백두령장들의 담대한 배짱이며 공적방식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자주적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 선군을 따라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가 변함없이 호르게 하여야 한다.

어머니수령님 란성 100돐은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전진하는 조선의 국력을 떨치는 중대한 계기이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혈통을 뜻하여 이어나가는 조선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을 과시하는 혁명적대추진이다. 우리는 올해를 위대한 항도의 당을 따라 대를 이어 대고조력사를 계승해나가는 장엄한 총진군의 해로 빛내야 한다.

지금 우리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2012년까지의 력사적단계의 목표를 거머쥐어 달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공동사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자!》, 이것이 올해에 전당, 전군, 전민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투쟁구호라고 지적하였다.

공동사설은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 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릴데 대한 문제,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어나갈데 대한 문제,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갈데 대한 문제를 올해의 투쟁구호로 제시하고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친백배 투쟁방식에서, 선군을 따라 걸어나감으로써

있다. 공동사설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통일은 백두산천출유인들의 필생의 념원이었으며 우리 대에 맡겨진 최대의 민족사적과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어머니수령님의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셨다.

오늘 불멸의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조국통일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어있고 애국열의에 불타는 7천만 겨레가 있기에 민족의 세기적추방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통일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애국의지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당국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여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핵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대항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를포기를 각방으로 방해해나선 남조선역적제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행위는 온 겨레의 지탄을 받고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으로 되고있다.

지난해의 정세흐름은 자주통일, 평화변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으며 반통일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립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민족자주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10.4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려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남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북남관계에 북쪽에서 몰아가는 동족대결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제당의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호전망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데는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충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을 수 없으며 반통일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립장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것은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해나갈데 대한 6.15통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호소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이룩해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존엄과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은 곧 우리의 신망이 짓밟히는것이다. 민족이 있고서야 자유로운 신양생활도 있을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은 지난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력사적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한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대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끝으로 공동사설은 새로운 대전군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오늘날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신다. 희세의 명장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고 항도의 당을 총직하게 만들어나가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과 일심단결의 천만대중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발걸음은 선군 승리의 힘찬 발걸음, 강성부흥의 우람찬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이어져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변영의 년대, 자랑스러운 승리의 년대로 끌어나가자!》

본사기자

겨레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통일구호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이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가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오늘날 외세는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대조선적대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 갖은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민족자주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10.4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려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남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우리 겨레가 올해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의 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며 북남관계를 북쪽에서 몰아가는 동족대결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제당의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호전망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데는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평화를 떠나서 민족의 생존은 물론 통일과 변영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오늘날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군부호전망들은 북침을 노린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연일 벌리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열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충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을 수 없으며 반통일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주체 101(2012)년은 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해야 할 해이다.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올해에도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제야 아닐수 없다.

평화가 수호되지 않고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안녕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민족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짓밟히고 겨레가 풀이킬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다.

야합하여 《키 리브》, 《독수리》를 비롯한 침략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매일같이 벌여놓고 하늘, 땅, 바다를 전쟁의 길은 화약내로 뒤덮었다.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전쟁경계로 치닫고



라는데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여기서 리득을 볼것은 침략적인 외세밖에 없다. 하기에 공화국은 지난 한 해에도 이 땅의 평화수호를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북남교위

락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용감 떨쳐나서야 한다.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온 겨레의 단결된 투쟁에 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보국안민》, 《적양적책》의 기치높이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던 지난날의 전통을 이어 올해에도 겨레와 동귀일체하여 내외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전도교중앙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라기환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새해공동사설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립장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것은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해나갈데 대한 6.15통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호소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이룩해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존엄과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은 곧 우리의 신망이 짓밟히는것이다. 민족이 있고서야 자유로운 신양생활도 있을 수 있다.

민족의 일원이려면 누구나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민족자주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 는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공화국의 카톨릭교인들은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이해에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려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남치게 하고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남조선에서 외세공조로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용감 떨쳐나서서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조선기독교총연합회 중앙위원회 성당 회장 김철웅

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명인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라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대결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제당의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의 규탄배격을 받고 민심창이 된 구도의 동족대결책인 《비핵, 개방, 3 000》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그 무는 《원칙》론, 《처단조치》를 시종일관 채택아넣어 이 하며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파괴적탄압소통을 준렬히 단죄구판해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이자 곧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실현이다. 우리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안의 전체 일군들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듣고 새해에 해대의 온 겨레와 함께 친민적법위에서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박명만

겨레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통일구호

민족의 대국상에 도전한 반역의 무리들은 죄악의 대가를 단단히 맛볼것이다

대결의 흥심을 또다시 드러낸 폭언

미친게는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묻다고 한다.
 집권하기 바쁘게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만을 고취해온 남조선의 현 집권자 리명박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날까지 북과 대결할 흥심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다.
 그는 《신년국정특별연설》 과정에서 그 무슨 《정세변화의 예고》니, 《진정성》이니, 《기회의 창》이니 하고 황실수설하면서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이나 할것처럼 회째 늘어났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한마디로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죄행을 가리우고 동족대결을 변함없이 추구할 흥심을 그대로 드러낸 망발로서 인간기기를 그만둔자의 철면피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리명박은 최근 대국상을 당한 동족에게 온전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칼을 들이대는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저질렀을뿐 아니라 우기는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끝수에 배긴 《체제대결》 망상을 실현해 보려는 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망동까지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제가 저지른 만고죄상에 대해 석고 대죄할 대신 이번엔 또다시 동족대결의 사나운 이발을 그대로 드러낸 리명박의 망동은 죽을 때까지도 사람을 묻려고 하는 미친게를 그대로 뽐낼까 한다.
 리명박패당은 체제대결에 환장하여 너무도 어리석게 놀고있다.
 연 2억 6000여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민족의 아버지를 애라게 찾고 부르며 조의를 표시하고 온 겨레가 불세출의 위인을 가장 경건하게 추모한 피눈물에 절은 대국상의 10여일을 지켜보면서 인류는 평등자와 인민이 운명공동체를 이룬 조선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았다. 친만군인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를 펼쳐가는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에서 세계는 조선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계속 승승장구해나가는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인간의 초보적인 료리, 례의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사물현상도 제대로 분간할줄 모르는 한갓 정치불량배에 불과한 리명박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바

로 보일리 만무하다.
 하기에 그는 이번엔 체제대결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그 무슨 《〈한〉 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에서 큰 변화가 예고》 된다고 넋두리질을 한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변화가 예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리명박역도가 파멸되는것뿐이다.
 실지로 지금 리명박은 집권기간 그가 저지른 친미사대와 반인민적, 반민족적, 반통일적죄악으로 하여 죄악의 위기에 몰려있다.
 더우기 인간의 체모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리명박은 이번의 민족의 대국상에 친추에 용납 못할 망고대결을 저질러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의 대상이 되고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까지도 리명박의 탈당을 요구하며 그와 등을 돌려대고있는 판이다.
 안팎으로 물리는 리명박이 민심의 저주와 규탄속에 파멸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989호

리명박역도가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데서 그 무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에서 큰 변화가 예고》 된다는니, 《기회의 창》이니 뭐니 하면서 북이 《진정성》이라는 하도르 나온다던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함께 열어갈수 있을것이라고 떠벌었다.
 그런가하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떠들며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라는 독기어린 폭언도 내뱉었다.
 뿐만아니라 북이 《핵관련 활동을 중지》하면 6차회담을 통해 북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수 있다는 회떠운 망발도 쳐줬다.
 이것은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껍데기이며 동족대결흥심을 변함없이 드러

낸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도발이다.
 이번에 역도가 그 무슨 《큰 변화》니 뭐니 하고 떠든것은 아직도 체제대결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자의 가스로운 넋두리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위대한 천출명장을 최고명도자로 높이는 모신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안고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강성병영의 년대,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섰다.
 온 세계는 민족의 대국상을 통하여 일심단결로 더욱 철통같이 뭉쳐진 친만군인이 새로운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대전쟁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에 떨쳐나선 우리의 격동적인 현실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러나 유독 리명박역도만은 이 위대한 흐름을 보지 못하고 허황한 개꿈을 꾸고있으니 실로 가공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변화가 예고된다면 그것은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게 된 리명박역적패당이 완전 파멸되는것뿐이다.
 리명박역도가 《진정성》이니, 《평화와 안정》이니 뭐니 하고 떠벌인것

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더 강화해나갈것이다.
 리명박역도가 《신년연설》이라는데서 그 무슨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있다는니 뭐니 하고 력설한것은 파렴치한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괴뢰패당의 반인륜적망동에 대해 경고도 하고 그것이 북남관계에 미칠 돌이킬수 없는 후과에 대해 경중도 울리면서 역적패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역적패당은 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장 야만적인 천하망종짓으로 그 절호의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했다.
 그러한 괴뢰역적패당이 지금 와서 또다시 《기회의 창》이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그들의 철면피성을 더욱 드러낼뿐이다.
 이제 리명박패당에게 남은 것은 민족의 존엄한 심판뿐이다.
 역적패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으며 림종의 운명밖에 차례질것이다.
 력사는 인륜을 짓밟고 천륜을 어긴 잔인무도한 야수들이 역적패당에게 반드시 비참한 징벌을 내릴것이다.
 주제101(2012)년 1월 5일 평양

리명박의 동족대결흥심은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데서 그 무슨 《진정성》이니,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있다.》느니 하고 역설한 데서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완전과란시키고 정세를 위협천만만 지경으로 몰아간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철면피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집권하자마자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를 《현협한 민족주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라고 비난한 리명박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핵포기》니, 《원칙고수》니, 《태도변화》니 하는 별의별 잡소리를 다 늘어놓았다.
 이른바 《진정성》이라는 것도 리명박이 《대북정책》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해낸 대결창안물종의

징벌을 결코 피할수 없다

하나이다.
 리명박은 《진정성》을 코에 걸고 《기대리는 전략》으로 《북의 변화》를 유도해보려고 꾀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금번사태》를 망상하면서 나중에는 《통일이 도적같이 한밤중에 올수 있다.》는 일도당도않은 무지의 망발까지 내뱉었다.
 앞에는 《진정성》 간판을 걸어놓고 뒤에서는 《주체개념을 확립하라.》, 《전쟁을 두려워 하지 말라.》고 고아대며 미국과 아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였다.
 리명박이 집권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조선반도에는 언제 한번 편한 날이 있어본적 없었으며 북남사이에는 대화도

다시 《진정성》에 대해 운운해도 그러한 헛나발에 이제 더는 귀기울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리명박이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있다.》고 떠들었지만 이미 그는 민족의 대국상기간 자기에게 차례된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단버렸다.
 리명박은 반통일, 반민족적죄악에 친추에 잇속을 쓴 반인륜적인 배륜패당의 죄악을 덧쌓아 우리 겨레와 세상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었다.
 동족의 진정을 우롱하고 겨레의 슬픈 가슴에 칼질을 한 대역죄인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와 민족의 존엄한 심판뿐이다.
 리명박은 결코 그것을 피할수 없으며 그 대가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리명박이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있다.》고 떠들었지만 이미 그는 민족의 대국상기간 자기에게 차례된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단버렸다.

리명박은 반통일, 반민족적죄악에 친추에 잇속을 쓴 반인륜적인 배륜패당의 죄악을 덧쌓아 우리 겨레와 세상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었다.
 동족의 진정을 우롱하고 겨레의 슬픈 가슴에 칼질을 한 대역죄인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와 민족의 존엄한 심판뿐이다.
 리명박은 결코 그것을 피할수 없으며 그 대가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리명박이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있다.》고 떠들었지만 이미 그는 민족의 대국상기간 자기에게 차례된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단버렸다.

리명박은 반통일, 반민족적죄악에 친추에 잇속을 쓴 반인륜적인 배륜패당의 죄악을 덧쌓아 우리 겨레와 세상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었다.
 동족의 진정을 우롱하고 겨레의 슬픈 가슴에 칼질을 한 대역죄인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와 민족의 존엄한 심판뿐이다.
 리명박은 결코 그것을 피할수 없으며 그 대가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림종에 처한자의 단말마적발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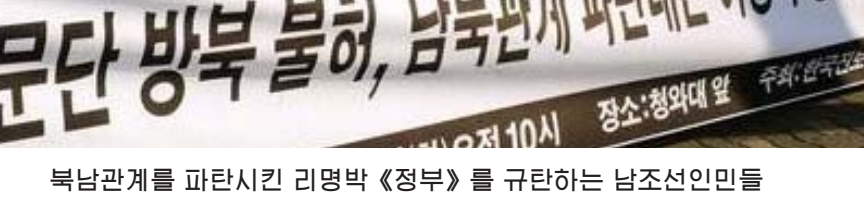
남조선집권자 리명박이 새해벽두부터 그 누구의 《도발가능성》이니, 《강력한 대응》이니 하며 또다시 북에 도발을 걸어왔다.
 그는 새해를 맞으며 한 무슨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데서 이따위 소리를 늘어놓았다.
 리명박으로 말하면 《실용》간판을 걸고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나라와 민족을 반대하여 저지른 사대매국적죄행으로 하여 안팎으로 배척당하고 심각한 통치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산송장과 같은 존재이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자는 지난해 민족의 위대한 라이선으로, 아버지로 높이 우리로모시고 따르던 불세출의 위인을 뜻밖에 잃고 온 겨레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조의 표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애도 분위기에 도전하여 인륜에 칼질을 한 가장 추악한 인간 잡종이다.
 이따위 속물이 《도발》이니 뭐니 하며 허끝을 늘려낸것은 림종을 앞둔자의 마지막 발악, 민족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자의 히스레리적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허끝으로써는 결코 자기의 반인륜적, 반민족적죄행

을 감쌀수 없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북의 도발》에 대하여 떠들면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극단적인 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함으로써 정세를 격화시켜왔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북의 성의있는 조치들에 도발적인 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서며 정세를 불과 불이 오가는 상황으로까지 끌고간것이 바로 남조선의 현 당국이다.
 리명박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었는데 국상을 당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내대며 무장총돌을 노린 전쟁열을 고취한것보다 더한 도발이 또 어디 있었는가.
 오죽하였으면 남조선 각계층이 《상중에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비상이 없고 초상집을 상대로 미상정보를 발송하는 패륜아가 어디에 있는가.》고 하면서 리명박패당을 단죄하였는가.
 불상사를 악용하여 북의 체제변화를 꾀하며 대결소동을 벌려온 리명박은 온 민족으로부터 인륜도덕도 모르는 패륜패당원, 불망나니라

늘부심보

(리명박의 《신년국정특별연설》에 대한 반영)
 《도무지 달라진것이 없는 일방통행식 일장연설》(민주통합당 대변인)
 《이미 마지막까지도 〈한〉 반도 긴장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겠다는 리명박의 독단과 반통일의지에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 《파란만 남북관계를 차기 〈정권〉에게 넘겨주겠다는 늘부심보》(통합진보당 대변인)

기자회견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리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말
 《도무지 달라진것이 없는 일방통행식 일장연설》(민주통합당 대변인)
 《이미 마지막까지도 〈한〉 반도 긴장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겠다는 리명박의 독단과 반통일의지에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 《파란만 남북관계를 차기 〈정권〉에게 넘겨주겠다는 늘부심보》(통합진보당 대변인)

기회를 잃은자들의 넋두리

원세력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조문포시요구에 《부지불허와 주민불리대응》이라는 나절한 정치연극으로 리간정권을 패퇴했으며 민간군의 조문단파괴도 하지못해 《선별부문》, 《제한된 담배조문단파괴조치》로 생생배기를 하였던것으로 바로 이렇다.
 남조선인민들의 조의방문결은 총칼로 가로막으면서도 우익보수단

체를 내몰아 배라살포를 조장하고 더우기는 무엄하게도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의 《최종책임》을 공화국의 최고준엄과 령치키는 악담까지 떠벌인것은 리명박패당이 천하에 돌도 없는 인간잡종들의 집단, 정치깡패무리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간의 초보적인 료의도 도리도

역무리들의 흥심이다.
 대역죄로 조패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교활한 《대화》 넋두리, 대결광기에 환장한 《도발》 타령으로 천벌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민족과 력사는 리명박패당의 죄악을 두고두고 기억할것이며 끝까지 결산할것이다.

주제넘은 샷대질

어른 리명박 《정권》은 상전의 핵전쟁의 돌격대가 되어 공화국을 자국하는 무력도발소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북남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는 긴장상태로 몰아갔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침엽한 정세속에서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이미 침략세력들에 의해 몇번이고

전쟁이 터지고 온 민족이 핵참화를 입었을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물질을 산생시킨 미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날이 핵전쟁의 위험을 종대시킨 리명박역도가 저들의 죄는 모두 당반우에 올려놓고 그 누구보고 《핵활동의 중지》이니 뭐니 하고 떠든것은 실로 언어도단이다.
 리명박은 이번의 망발로 공화국을 무장해제시켜 불순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다시금만 천하에 드러냈다.
 참을수 없는것은 리명박이 그 무슨 《지원》을 떠들면서 대국상을 당한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다지고다저은 자립적민족정체의 든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열어가고있다. 온 세계가 날마다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사변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리명박이 그 무슨 《핵활동중지》니, 《지원》이니 떠드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는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우리 겨레가 천만년 보존할 유산이다. 이 귀중한 유산을 그 무엇과바꿀수 있으리라고 생각한것은 오산이다. 공화국은 내외호전세력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생명과도 같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더 강화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새해의 진군길에 우리는 발걸음소리

새해에 들어와 강성국가의 대문을 향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장엄한 대진군이 시작되었다.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다시금 일떠선 이 나라 군민의 발걸음소리에 온 세계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땅에 울리는 발걸음소리에는 대를 이어 령도자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승리를 이룩해 갈 전진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 어려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자!》라는 새해 공동사설의 구호를 심장에 새겨안고 공화국인민들은 새해벽두부터 자기 맡은 부문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술솜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발하여 힘찬 애국의 발걸음소리를 높이고 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함남의 불길드높이 더 높은 비료생산으로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려는 흥남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최첨단돌과

진으로 생물공학분야에서 기여이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려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본원의 과학자들,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더 높은 생산목표를 내세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포공처녀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대동강과 수중합성공장, 룡악산비료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과 농업 부문, 인민경제 선행부문 그 어디를 둘러봐도 애국의 힘찬 발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현대적인 대형가공중심반에 대한 총시운전준비가 완료된 최첨단기계종합공장이며 눈부러 아득히 뻗어올라선 만수대지구건설장, 동평양지구의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창광원식목유량과 인민야외빙상장건설장 등 그 어디서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소리가 울리고 있다.

새해를 맞으며 평양을 방문한 한 해외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아픔속에서도 고국인민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어느해와 다름없이 공동사설을 받들고 양양된 기세로 더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백두산의 기상과 정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신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소리 이 나라 강산을 울리고 온 나라 군민이 신심에 넘쳐 위인의 발걸음따라 척척 앞으로 내달리는것이 고국의 현실이다.》

올은 말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힘찬 발걸음소리에 온 나라 군민이 애국의 련일 전례들으며 령도자와

열정안고 화답해나섰다.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2012년 이 나라의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주제 105방곡사단을 찾으시고 련이어 2012년 은하수신년을 약화도 관람하시였으며 각지의 인민들이 울린 소박한 편지들도 보아주시고 사랑어린 친필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그이의 현지도소식을 련일 전례들으며 령도자와

발걸음을 맞추어나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어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진군의 발걸음소리 높이 울리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을 따르자. 그 길에 조국의 강성부흥이 있고 통일이 있다. 이것이 새해 첫 진군길에 나선 공화국인민들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맹세이다.

본사기자 박원평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전생산을 다그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공동사설에 비끼인민사랑의 정책

주제101(2012)년 1월 1일 아침 공화국의 출판 보도물에는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평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자!》가 실렸다.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인 1995년 1월 1일부터 해마다 첫날에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발표하여 왔는데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한해과업과 목표가 다 제시되어있다. 공화국인민들은 공동사설을 령도자의 사상과 정책이 담긴 《신년사》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

해마다 그려졌지만 올해의 공동사설은 민족의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맞는 첫해의 공동사설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민족 자주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실 것인가, 가장 중시하는 과업은 무엇인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해의 공동사설을 읽어보았다.

올해 공동사설전반에 관통된것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여기에 새해공동사설 가운데서 몇대목을 적어 본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자!》라는 새해 공동사설의 구호를 심장에 새겨안고 공화국인민들은 새해벽두부터 자기 맡은 부문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술솜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발하여 힘찬 애국의 발걸음소리를 높이고 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함남의 불길드높이 더 높은 비료생산으로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려는 흥남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최첨단돌과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가금기지들, 대규모과수농장과 양어기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공동사설에서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이것이 위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일군들의 실천의 구호, 량심의 구호이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책이 자자구구마다 비껴있는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골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대도시처럼 자신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며 그이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몸치여 아버지이시런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일군들의 실천의 구호, 량심의 구호를 받들고 있다.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길은 무엇인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해의 공동사설을 읽어보았다.》

《현시국 인민들의 먹 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

..... 변이 나는 내 나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양어업

최근 공화국에서 양어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신창과 구장을 비롯하여 가는 곳마다 양어장들이 수풀처럼 꾸러져 물고기떼가 옥실거리고있다.

바다 먼 산촌들의 대대적인 양어에 뒤질새라 서해바다를 긴 룡연양어에서 철갑상어의 대량양어와 바다양어를 실현하여 선군12경을 펼치였다. 수질좋은 샘물이 솟구쳐오르는 룡정원수주변에 자리잡은 룡정양어장에는 물을 원천으로 하는 160여개의 양어못들과 철갑상어알 깨우기 및 새끼고기사육장, 물러과장, 배합먹이가공장, 단백먹이가공장 등이 거대한 한쪽의 그림자나 펼쳐져 있다. 이 양어장에서 철갑상어양어와 가공을 세계의 대 선 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웠으며 인공알깨우기에 성공하여 철갑상어의 대대적인 양어전망을 열어놓은것은 공화국의 양어업발전력사에 특기할 성과이다.

대규모의 현대적인 철갑상어양어체계가 확립된것과 함께 철갑상어양어에서 첨단인 바다양어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었다.

세계적으로 낮은 염도에서

밖에 하지 못하는 철갑상어의 바다양어를 이곳에서는 소금기가 30%이상 되는 바다물에서 실현하였다.

그런가하면 동해지에는 연어와 같은 고급어족들의 연어와 양어, 가공이 일체화된 종합적인 양어연구소가 일떠섰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된 기술집약기업소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양어연구소에는 연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의 대대적으로 기르고 그 가공품을 우리 식으로 대량생산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 되어있다.

연어의 증식과 방류, 먹이와 가공에 대한 분석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종합적인 연구기지가 꾸러지고 과학적인 양어연구체계가 새롭게 확립되었다. 연구소에서 종어확보와 먹이생산, 인공알깨우기기술을 완성하여 양어에 대대적으로 양어하고 있는것은 공화국의 양어업발

전력사에 특기할 자랑이다.

앞에서 까나 다음 먼바다에 나가 얻지키기 되어 자기가 난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어의 생리특성에 맞게 자연양어연구도 심화되어 경제효과성과 실리가 부단히 확대되었다. 연어양어는 불과 몇년전에 시작되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한번에 수백여만마리의 새끼고기를 강에 놓아주게 되었으며 해마다 연어잡이량도 끊임없이 늘어나 초기에 비하여 근 수십배에 달하고있다. 강하류와 바다수역을 포괄하는 연어특별보호구역에 따라 해마다 2월이면 새끼고기들이 떼지어 바다로 나가고 10월이면 다시 자란 연어들이 무리지어 올라오는 이채로운 풍경은 사람들에게 유족하게 잘살 날을 그려주며 기쁨을 꽃피워주고있다.

연어뿐아니라 철갑상어, 칠색송어, 룡정어를 비롯한 고급어족연구와 양어, 가공을 동시에 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해

결되었다.

이와 함께 모든 생산공정이 최신설비들로 장비된 능력이 큰 물고기가공공으로 새로 일떠서 독특하고 향기로운 맛을 가진 각종 물고기들의 팽은제품들과 알가공품들, 절일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얼마전에는 최신설비를 갖춘 대동강자라공장이 새로 일떠서며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널리 알려진 맛있는 영양가가 높은 자라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려있다.

최근 공화국에서 양어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것은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물론천이 있는 곳마다 양어장들을 건설하며 여러 가지 고급어족들도 기를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 연구소들을 세우도록 웅대한 실 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의 헌지

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장군님이다.

지나해에만 해도 여러곳의 양어장들과 공장들을 찾 으시며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지금이 도 루메기철민대 빨리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지난해 12월 16일 저녁에도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문건에 수표하신 아버지이시런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가르치심에 따라 그 사 랑어린 물고기인 민족최대의 대국상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던 애도기간에 평양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인민들의 유쾌한 식생활향상을 위해 노력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정책은 오늘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될 새해 2012년에는 지금껏 건설한 현대적인 양어기지가 커다란 은 을 내어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덕을 보게 될것이라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수답게

새해를 맞고보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더욱 그리워진다.

지난 세기말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공업의 근본 기계공업을 추켜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10여 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날들이 걸은 경제발전의 여리 단계를 단번에 도약하여 오늘과 같이 지식경제화,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로고, 불멸의 애국업적이 되새겨져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지난 해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기계공업 부문을 수없이 현지지도하시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을 지펴주시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선구자이 최첨단기계종합공장에서 지난해에 우리 식의 대형가공중심반을 설계, 조립하는데서 놀랄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우리 기계공업부 문앞에는 해야 할 과업들이 부분분들을 자체로 생산해

냄으로써 CNC공작기계부분 품의 국산화비율을 대폭 늘 이었다.

우리 나라의 대규모기계 제작기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기로 되어있었던 흉남가스화 에 개발해낸 룡남가스화 착탐과 수조정제탑을 자체 힘으로 제작하였으며 그 기제로 첨단지열설비를 우리 식으로 개발해냄으로써 조선 은 결실하면 한다는것을 세상에 과시하였다. 룡남기계련합기업소에서 흉남가스화공정의 심장부인 대형산소 분리기를 제작하여 동해안에서 주체비료의 첫 폭포가 쏟아지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우리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에서는 최첨 1, 2호발전소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여러기의 대규모발전 기와 터빈들, 룡남전력의 물 명한 령도가 있기에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 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날은 반 도지 오라라고 확신한다.

기계공업성 국장 김 죽송

새해 공동사설에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 함남의 불길따라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기계공업성안의 전체 일군들은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아버지이시런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일군들의 실천의 구호, 량심의 구호를 받들고 있다.

그리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수답게 최선적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발전 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 련하의 창조기풍으로 기계공업부문의 첨단기술준비 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놓으신 자립적 기계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 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날은 반 도지 오라라고 확신한다.

기계공업성 국장 김 죽송

제3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개막

제3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새해벽두에 열린 전시회에는 지난해 7월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다음번에는 더 크고 의의있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이 경 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아버지이시런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시회와 관련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진행되는 이번 상품전시회에는 전국의 수백개 공장, 기업소들과 상업봉사

부분의 리용생산반, 합영, 합작단위 등에서 생산한 2,800여종에 590만여점의 소비품들이 출품되었다.

2차전시회에 비하여 참가단위수는 70여개, 상품품종 수는 1,400여종이나 더 늘 어났다.

개막식이 3일에 있었다. 리무령 내각부총리, 김보철상업성, 관계부문 일군들, 성, 중앙기관, 상품보장단위 일군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리무령 내각부총리가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과 경애하는 장군님 탄

생 70돌을 맞은 올해에 인민 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체 전시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이룩하기 위한 올해의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새해 공동사설전반에 펼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진군길에 함남의 불길 이 새차게 타오르고있다.

함경남도에는 공화국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흉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비료생산을 추켜세우며 농업생산에 큰 활력을 부여줄수 있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비날론생산과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면 이는 문명과 함께 화학공업발전의 필요한 많은 원료들을 해결할수 있다. 공화국의 손꼽히는 대기제작기지의 하나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그 여기에 자리잡고 있다. 마그네사이트와 유색금속광물을 캐내는 공화국 굴지의 광산들이 또한 이곳에 있다. 민일 단

로 하면 10년이상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그러나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능력확장공사를 불과 2년, 흉남비료련합기업소의 기초1제련공사를 2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했다는것은 기적이 아닐수 없다.

함경남도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는 언제나 맑은 파업을 수행하기 위한 립제전이 벌어지고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경쟁열풍이 새차게 나래오며 모든 생산과 건설이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일단 과업을 받으면 《단숨에》의 기질로 냐다 내달리는 완강한 공

격정신으로 함경남도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로동계급의 새 문화도 창조하고 도시와 마을을 선경으로 전변시켰다.

이러한 함남의 불길을 높이 추켜 들고 나간다면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최단시일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결속함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함남의 불길에는 또한 제힘으로 세계에 솟구쳐오르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이 구현되어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그리하였지만 함경남도사람들도 시련에 찬 가시덤불길을 헤치치 않으면 안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속에서 그들이 산악같이 일떠세운것은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신념이었고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려는 비상한 각오였다.

제힘으로 세계적인것을 창조해내려는 자력쟁쟁의 정신력으로 룡성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기로 되어있었던 흉남가스화 에 필요한 설비들을 끝내 제힘으로 만들어냈다. 나라의 굴지의 마그네사이트광산에서 단천지구의 광산, 광장에서 주체화, 국산화의 자랑찬 성과들이 달성되었다. 마그네사이트광산에서 마그네사이트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국산화방향으로 나가

어떤 시련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정신, 무슨 일이나 이익하게 달라붙어 무조건 끝까지 해놓고야마는 불기능을 모르는 실천력, 함남의 이 기질이 그들을 경제강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는 선구자로 되게 하였다.

같은 일을 맡겨도 함남도사람들은 각자가 다르고 일본새가 다르다. 지금까지 이들은 달라붙어 못해낸것이 없었다.

복스는 영원히 죽었다는것을 남편이 실천으로 선포한 사람들, 이번만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했던 흉남의 가스화도 마침내 기어이 해낸 사람들, 소문없이 세계적인 대동강과수중합성공장 같은 사과바다를 자개로 펼쳐놓아 온 나라를 깜짝 놀래

함남의 불길은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



거는것은 자체의 자원과 기술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든든한 밑천을 얼마든지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봉쇄책동에 파멸된를 넘어 세계를 향해 솟구쳐 오르려는 함남사람들의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으로 싸워나갈 때 공화국은 강력한 자립경제로대에 의거한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기지를 마련할수 있다.

함남의 불길에는 또한 자기 고장, 자기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이 구현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남도사람들은 이익하고 근면하다, 무엇이 나 달라붙으면 못해내는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같은 일을 맡겨도 함남도사람들은 각자가 다르고 일본새가 다르다. 지금까지 이들은 달라붙어 못해낸것이 없었다.

복스는 영원히 죽었다는것을 남편이 실천으로 선포한 사람들, 이번만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했던 흉남의 가스화도 마침내 기어이 해낸 사람들, 소문없이 세계적인 대동강과수중합성공장 같은 사과바다를 자개로 펼쳐놓아 온 나라를 깜짝 놀래

운 사람들, 불리한 동해지구의 농사에서 끝내 세 혁신을 창조한 사람들이 바로 함경남도사람들이다.

자기가 사는 고장과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이 구현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남도사람들은 이익하고 근면하다, 무엇이 나 달라붙으면 못해내는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현성

거는것은 자체의 자원과 기술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든든한 밑천을 얼마든지 마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봉쇄책동에 파멸된를 넘어 세계를 향해 솟구쳐 오르려는 함남사람들의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으로 싸워나갈 때 공화국은 강력한 자립경제로대에 의거한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기지를 마련할수 있다.

함남의 불길에는 또한 자기 고장, 자기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이 구현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남도사람들은 이익하고 근면하다, 무엇이 나 달라붙으면 못해내는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현성

같은 일을 맡겨도 함남도사람들은 각자가 다르고 일본새가 다르다. 지금까지 이들은 달라붙어 못해낸것이 없었다.

복스는 영원히 죽었다는것을 남편이 실천으로 선포한 사람들, 이번만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했던 흉남의 가스화도 마침내 기어이 해낸 사람들, 소문없이 세계적인 대동강과수중합성공장 같은 사과바다를 자개로 펼쳐놓아 온 나라를 깜짝 놀래

운 사람들, 불리한 동해지구의 농사에서 끝내 세 혁신을 창조한 사람들이 바로 함경남도사람들이다.

자기가 사는 고장과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이 구현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남도사람들은 이익하고 근면하다, 무엇이 나 달라붙으면 못해내는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현성

같은 일을 맡겨도 함남도사람들은 각자가 다르고 일본새가 다르다. 지금까지 이들은 달라붙어 못해낸것이 없었다.

복스는 영원히 죽었다는것을 남편이 실천으로 선포한 사람들, 이번만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했던 흉남의 가스화도 마침내 기어이 해낸 사람들, 소문없이 세계적인 대동강과수중합성공장 같은 사과바다를 자개로 펼쳐놓아 온 나라를 깜짝 놀래

운 사람들, 불리한 동해지구의 농사에서 끝내 세 혁신을 창조한 사람들이 바로 함경남도사람들이다.

자기가 사는 고장과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이 구현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남도사람들은 이익하고 근면하다, 무엇이 나 달라붙으면 못해내는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현성